

## 결 의 문

당의 앞날과 정권재창출을 걱정하는 새천년민주당 원외위원장 일동은 함께 모여 국민통합과 대선승리를 위해서는 지역패권구도를 넘어선 통합신당의 창당과 범여권 대통령후보단일화가 유일한 길임을 재확인했다.

우리 원외위원장들은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와 8.8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과 파산선고가 내려졌음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지도부와 대통령후보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국민의 심판에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대해 깊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현재 민주당은 선대위체제로의 당개편이란 미명아래 당정분리원칙이 실종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급진세력에 의해 중도개혁을 지향하는 당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왜곡 변질되는 작금의 사태에 까지 이르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하건대 우리는 정권재창출만이 어떠한 명분과 이념보다도 지역갈등극복과 지속적 개혁 달성이라는 국민여망에 부응하는 절체절명의 목표요 길임을 인식하고, 이제 당을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의 침묵을 털어 버리고 결연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우리 원외위원장 일동은 우리당의 중도개혁이념과 정체성을 수호하고 국민통합정신에 기초한 대통령후보 단일화만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공감, [통합신당과 대통령후보 단일화추진 원외위원장협의회]를 결성하면서, 동시에 우리당 지도부와 대통령후보에 다음과 같은 3개항의 공개질의를 던진다.

1. 노무현 대통령후보와 당지도부는 당원의 여망인 정권재창출을 위한 지금이라도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통합신당창당과 범여권후보 단일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는가?

「국민통합과 대통령후보 단일화 추진 원외위원장협의회」  
운영진 명단 발표

□ 공동위원장 이석형(서울 은평을)

이성호(경기 남양주)

대변인 김창수(대전 대덕)

총무간사 황장수(경남 사천)

실무위원 : 이석형, 김창수, 황장수

염동렬(강원 영월·평창) 윤정균(경북 군위·의성)

노관규(서울 강동갑) 정용환(충남 부여)

(이상 7인)

□ 지역간사

- 서울 : 노관규

- 경기 : 정성호

- 강원 : 염동렬

- 충남 : 정용환

- 대전 : 김창수

- 충북 : 홍익표

- 경북 : 신원수

- 대구 : 이헌철, 이원태

- 울산 : 문병원

- 부산 : 류태건

- 경남 : 김재주

□ 참가자 명단 : 32명(명단 별첨)

□ 동의서 제출자 명단(참가자제외) : 22명(명단 별첨)

## ■ 참가자 명단

(인 원: 32명)

No	지 역 구	성 명
1	서울 은평을	이석형
2	서울 영등포을	장기프
3	서울 동작갑	이승엽
4	서울 서초갑	배선영
5	서울 강남을	이광수
6	서울 강동갑	노관규
7	부산 진을	황백현
8	부산 금정구	성태진
9	부산 연제구	송석봉
10	부산 수영구	류태건
11	대구 대구서구	이헌철
12	대구 수성을	이원배
13	대전 대덕구	김창수
14	울산 중구	문병원
15	울산 남구	이규정
16	경기 부천.소사	조영상
17	경기 동두천.양주	정성호
18	경기 양주	이성호
19	강원 영월.평창	염등열
20	충북 청원	홍익프
21	충북 제천.단양	이근규
22	충남 공주.연기	임재길
23	충남 보령.서천	김영수
24	충남 부여군	정응환
25	경북 포항 북구	신원수
26	경북 예천	황병호
27	경북 김천	배영대
28	경북 군위.의성	은정근
29	경남 진주	박영식
30	경남 사천	황장수
31	경남 거제	배길승
32	경남 함양.거창	김재주

■ 동의서 제출자 명단

(인 원:22명)

No	지 역 구	성 명
1	부산 중.동구	정증업
2	부산 진갑	강경식
3	부산 북.강서갑	박희등
4	부산 사하갑	강신수
5	대구 달서을	정덕규
6	대구 중구	이치호
7	인천 중구	서정화
8	인천 남구을	이강희
9	대전 중구	송증환
10	대전 동구	송천영
11	울산 울주군	한재화
12	경기 수원 권선	김인영
13	경기 과천.의왕	이 철
14	충남 아산	이원창
15	충남 청양.홍성	박호순
16	충남 예산군	조든희
17	경북 경주	이현우
18	경북 경산 청도	송정욱
19	경북 상주	김 탁
20	경북 성주.고령	이태희
21	경남 진해	최 혁
22		비공개

1. 노무현 후보측은 최근 선대위의 당내 인사-재정권 이양 요구, 당ру회의 소집거부등의 행위가 당정분리원칙 및 최근 대표후보간 합의사항인 당 2원체제 운영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1. 현재 노무현후보와 선대위 주변에서 나오는 반개혁부패세력정리를 위한 당내개혁및 주도세력 교체 발언 등은 중도개혁을 이념으로하는 당의 정체성을 왜곡하고 대선을 앞둔 당을 적전분열시키는 해당행위적 작태이다. 노후보측은 과연 선거에서 정권재창출을 할 의지가 있는가? 아니면 재집권을 포기하고 급진개혁야당의 길을 걸겠다는 생각인가?

2002. 10. 8

국민통합과 대통령후보 단일화 추진 원외위원장협의회